



대한민국,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에 적극 동참기로

- 방문규 국무조정실장, 정부 수석대표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참석 -

-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6.21(수)-22(목)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(Ukraine Recovery Conference)에 참석, 우크라이나 재건·복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.
 - * 국무조정실, 외교부,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석
- 이번 회의는 작년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.
- G7, EU 등 61개국, 33개 국제기구, 400여개 기업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피해 현황 및 복구 수요를 점검하고,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복구 추진 계획을 토대로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재건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방 실장은 6.21(수) 오후 국별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지지 의사를 표명하고, 지난해 1억불을 지원한 데에 이어 금년에 1.3억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소개하였다.
 - 또한, 재건복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조율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, 한국의 전후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재건과 기초 사회서비스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.

- 방 실장은 또한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 - 우크라이나 스비리덴코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방 실장은 금년 5월 21일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재확인하고,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영국 트레빌리언 외교부 인도·태평양 담당 국무상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5월 체결한 ‘개발협력 의향서’를 토대로 인·태 지역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.
 - 방 실장은 또한 폴란드 에밀리비치 폴-우 개발협력 정부전권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하에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협력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.
 - 또한, 가나 하몬드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에 관해 논의하였다.
-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6.22(목)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‘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*(Paris Summit for a new financing pact)’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.
 - * '22.11월,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, 빈곤 감축 등을 위한 글로벌 재원 확충에 대해 논의하는 정상회의 개최 공표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	책임자	과 장	신희선	044-200-2154
		담당자	서기관	이영주	044-200-2153
담당 부서 <공동>	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		책임자	과 장	박지숙
		담당자	서기관	이수진	02-2100-8138